

사회

■ 광주예고 '5·18 인증 교과서' 첫 공개수업



3일 광주예고에서 열린 '5·18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이 이날 첫 등장한 '5·18 인증교과서'를 받아본 뒤 5·18 관련 동영상에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은 뜨거운 이웃 사랑의 표현”

학생들 “외국인 선생님에 자랑하고 싶어” ... 교과서 활용 수업 전국 확산됐으면

“5·18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김영주(여·30) 국사교사가 묻자 학생들은 “화려한 휴가, 옛 도청, 학살”이라고 답했다.

3일 오후 1시50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예고등학교 1학년 4반 미술과 교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39명의 학생들은 '5·18 인증 교과서'를 뒤적이며 김 교사가 나눠준 유인물에 답을 적어 갔다.

이날 학교 수업에 주 교재로 처음 등장한 '5·18 인증 교과서'는 광주·전남 초·중등교사 11명이 3년 동안 집필한 것으로 5·18 기념재단이 5·18 수업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이날 수업의 주제는 '니콜라 선생님에게 5·18을 알려줘요!'. 수업을 기획한 김 교사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백지상태인 학생들이 지난 3월 영국에서 원어민영어 교사로 온 니콜라 선생님에게 이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업 전 설문조사에서 “전두환을 ‘김두환’, ‘5·18민주화운동’을 ‘5·18민주화전쟁’이라고 쓸 만큼 무관심했던 학생들은 50분간의 수업이 끝난 뒤에 “내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니콜라 선생님을 비롯한 외국인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

리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오지에(16)양은 “5·18은 이웃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5·18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앞으로 많이 배워서 5·18을 알리겠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최솔이(16)군은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5·18에 대해 대략 알고 있었지만 5·18의 가치와 숨겨진 의미는 몰랐다”며 “5·18은 평화를 위해 싸우고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발 걸음이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김 교사는 “50분 동안 5·18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찾

아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자랑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5·18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5·18을 주제로 각자 그림을 그려 오는 6일 니콜라 교사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5·18 기념재단 교육사업팀 송소연 과장은 “기존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수업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돼 보다 많은 학생들이 5·18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미친척’ 비보이

정신질환자 행세 병역면제 9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황모(30)씨 등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유명 비보이 그룹의 선후배 팀이던 이들은 병인 8곳에서 환청과 우울 등 증상을 핑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서를 쟁겨, 2002년 5월부터 작년 6월 사이

신체검사 5등급(현역면제) 또는 4등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애초 신검에서 입영 대상인 1~3급이나 재검을 받아야 하는 7급 판정을 받아, 인터넷과 전문의학서를 통해 정신질환 증세를 미리 공부해 가짜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에서도 외출을 피하고 목욕을 하지 않은 채 황실수술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가족까지 속였다.

/연합뉴스

위장결혼 중국인 2명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3일 중국 호구부(호적등본)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조선숙 김모(여·52)·한모(여·47)씨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위장 결혼 등을 통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자동차 검사소 전산시스템 마비 운전자들 불편·피해

“검사시간 1주일 연장”

자동차 종합검사소의 통합전산시스템이 마비돼 종합검사를 받으려 왔던 운전자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피 돌아가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3일 (사)광주자동차검사장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통합전산시스템 ‘빔스(VIMS)’의 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검사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빔스’는 지난해 3월30일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각 자동차검사소는 ‘빔스’에 접속하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할 수 없고, 종합검사 만

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지 않은 차량은 ‘검사미필’로 기록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지역의 자동차종합검사장은 모두 51곳(전국 762곳)이며 광주지역 운전자 200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 수많은 종합검사대상 자동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과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마쳐야하는데 시스템 마비로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1주일간 검사시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 피해를 입은 검사장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02) 김종두



곡성군수 후보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가입자 확인 체포영장

민주당 곡성군수 조형래 예비후보 승용차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위치추적기 가입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3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모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조회 결과 J씨가 문제의 추적기 가입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J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이 추적기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구입자가 J씨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누군가 J씨의 명의를 빌려 이동통신에 가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J씨가 추적기에 가입한 시기가 광주일도 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문제의 추적기가 최근 며칠 새

부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일 오전 8시25분께 조 예비후보의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아래 부분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추적기는 국내 이동통신회사인 T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GPS 위성으로부터 받은 위치정보를 계산해 관제센터로 송신하는 장비다.

GPS위성과 연동해 거리 제약이 없으며, 인터넷이나 휴대폰 및 전용단말기(mTrack)를 이용해 5m 범위까지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배터리 수명은 최대 140여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승용차 웅덩이 빠져 2명 숨져

2일 오후 5시25분께 순천시 낙안읍 금산리 모 수도원 앞길에서 NF소나타 승용차(운전자 이모·57·여)가 도로 옆 깊이 2m의 웅덩이에 빠져 타고 있던 김모(57·여)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이씨 등 2명은 구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길을 잘못 들어 유탄하다 경사로서 후진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웅덩이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돈 안준다” 동생에 빈 공기총 ‘방’

○동생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중 화강에 빈 공기총을 쏘는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오모(59·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지난 2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 거실에서 동생(57)의 오른쪽 어깨 위 허공에 빈 공기총을 한 차례 쏘는 것.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2007년 1월까지 완도군 완도읍에서 연 매출 40억원대의 전복양식 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중 매달 3000만원씩 받은 조건으로 동생에게 사업을 물려줬으나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말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이 3개월만 돈을 쥐서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미 영주권 취득하려 인감증명 위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조카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인감증명 발급용지를 훔친 뒤 이를 위조한 최모(47·광주시 동구 계림동)씨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초께 미국에 있는 조카 이모(여·33)

씨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영공군 모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공인근무요원 송모(27)씨에게 인감증명 발급용지 9장을 훔쳐도록 한 뒤 동)씨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ureon' (구텐)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s face and text promoting the product's benefits for skin health.